

흐트러져라, 너는 문학이다

영화, 사진, 글쓰기로 만나는 '문학과 매체' 수업과 평가

정아름 · 인천 이봄학교 · jungar1215@naver.com

“전통적인 교실에서 수행하는 배움의 방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학생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무감각해지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학생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은 권태롭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는가?”¹

최근 부천 원일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과 ‘행복한 학교’를 주제로 독서토론 수업을 하다 물었다.

“애들아, 학교 어때?”

“싫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게 재미가 없어?”

“공부요. 수업 시간이에요.”

‘권태롭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듀이의 말처럼 우리의 학교는 재미는 사라지고 단절된 지식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국어 수업도 나쁜 유월처럼 아이들을 때때로 무료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내가 수업에서 자유와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글쓰기와 수업을 병행하면서부터였다. 최근에 연극과 뮤지컬 대본을 쓰면서 새벽까지 대사 한 줄을 쓰기 위해 새까만 밤과 텅 빈 종이를 대면했다.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다 거친 말을 내뱉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환희와 고통 속을 오가고, 영혼은 유체를 이탈한 것만 같은 지점에서야 글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알았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상을 하려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킁킁한 마음 깊숙한 곳을 헤매며 한 단어, 한 문장, 자신의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

나는 대안학교에서 11년간 강사로 중·고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국어와 독서를 가르쳤다. 그러다 다양한 수업을 해 보고 싶어서 최근 7년간 부천의 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고등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초·중등 학생들과는 국어 시간에 독서토론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방과후 수업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2021년 2학기 부천 소사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현대문학 감상〉과 3학년 〈문학과 매체〉를 가르쳤다. 내가 근무했던 대안학교와 달리, 당시 함께한 일반고 아이들은 대부분 의욕이 없었다. 2학년 〈현대문학 감상〉 첫 수업. 뒷자리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살며시 깨웠는데 갑자기 팔을 확 휘두르며 노려보고는 다시 엎드려 자는 것이 아닌가.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며 뭘 신경 쓰냐는 듯 말했다. 그렇다면 수업 중에 자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당시, 나는 정신과 병원 위 센터에서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에게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두 배로 늘었다. 어떻게 하면 이곳저곳의 ‘의욕 없는’ 아이들과 즐거운 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 “선생님,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라며 몰래 넣어 주던 아이의 편지.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라는 아이의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새롭게 했다. 갈등과 기대 사이, 〈문학과 매체〉수업은 시작됐다.

대안학교의 국어 수업

고등학교 시절, 술 냄새를 풍기는 나이 든 국어 선생님의 수업은 지루했다. 별표를 남발하는 문학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아주 가끔 자유로

¹ 존 듀이(2018), 《경험과 교육》, 박영스토리, 17쪽.

운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였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좀머 씨 이야기》 속에서 그와 종종걸음을 같이 걸을 때, 동일 작가의 작품인 《깊이에의 강요》를 읽으며 홀로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로웠다.

‘입시와 공부가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의 장이 있다면 그곳엔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대안학교에 들어섰다. 이곳에도 갈등은 있지만, 자유가 있고 차별은 적고 순수한 수업과 생활이 가능하고, 아이들과 교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학교. 오늘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수다를 떠느라 교무실에 바글바글하다.

이번 학기, 대안학교에서는 국어와 별개로 ‘글쓰기 수업’이 개설됐다. 글을 즐기고, 또 잘 쓰려면 별도의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학교에서 흔쾌히 만들어 주었다. 글쓰기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솔직하게 쓰고, 고쳐 쓰는 과정을 아이들과 연습 중이다. 중등부 10명, 톡톡 튀는 아이들의 말하기와 글쓰기로 이 반은 늘 기대가 된다. 6차시 ‘오감으로 느끼는 글쓰기’ 시간. 여러 감각을 이용해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세하게 글을 써 보기로 했다. 빼빼로를 하나씩 나눠 준다. 나는 먼저 “절대 먹지 마시오!”를 강력히 외치고, 아이들에게 빼빼로를 살펴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또 손으로 잡은 부분의 촉감을 기억한 다음,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느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위아래로 유심히 빼빼로를 관찰한다. 쿵쿵거리며 빼빼로를 코에 갖다 댄다. 초콜릿이 묻지 않은 과자의 겉을 만져 본다. 이어 또둑, 씹는 소리가 고요한 교실에 퍼진다. 이제 오감으로 느낀 빼빼로를 글로 쓸 시간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느낀 점을 쓰도록 했다.

초콜릿이 녹고 나무가 보인다.

나무는 오독오독 씹힌다.

이빨은 도끼가 된다.

도끼는 나무를 자른다. (권혜성, 이봄학교 중2)

“이번 학기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종일 독서 수업을 하는 건 어때요?”

교장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제안. 1-6교시 내내 독서 수업이 가능할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나는 대답을 주저하다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이 떠올랐다. 발도르프의 에포크 수업에서는 같은 과목을 매일 2시간씩 3-5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정해진 교과서 없이 선생님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에포크 수업처럼 한 주제를 깊이 다루며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수업이라면 아이들에게 넓은 시각과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에세이 《먹는 인간》²과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다룬 《한국의 논점》³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논의해 보면 좋을 사회문제와 이와 관련된 문학과 매체를 연결해 독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1, 2교시는 아이들이 충분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전 독서 수업에서는 책을 미리 읽어 오게 했는데, 책 읽기가 숙제가 되니 아이들에게 책 자체가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다. 책을 읽어오지 않는 아이를 나무라는 것도, 따로 책 읽기를 시킨 다음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1, 2교시 동안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었더니 아이들은 여유롭게 책장을 넘기며 집중해서 읽었다. 텀블러의 물을 훌쩍이며 책을 읽는 아이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했다. 3, 4교시는 읽은 책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다. 영화와 다큐, 강의와 뉴스를 다양하게 연계했다. 영상을 본 후에는 1, 2교시 때 읽은 책 내용을 가볍게 나누고,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같이 고민해 보았고 토의 및 토론 주제를 정해 아이들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 보았다. 5, 6교시에는 질문지 내용을 글로 정리했는데 감상문이나 기사문, 논설문 같은 여러 형태의 글을 썼다.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은 아이들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정한 주제의 자료를 조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각자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2 헨미 요(2017), 《먹는 인간》, 메멘토.

3 강양구 외(2018), 《한국의 논점》, 북바이북.

나는 일주일 내내 수업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랐다. 독서 수업을 끝내고 나면 진이 빠졌지만,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독서 수업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라는 게 아닌가. 어쩌면 아이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건 아닐까.

대안학교의 국어 수업은 내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수업과 달랐다. 마치 학교 도서관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닮았다.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 모두가 국어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또 아이들은 글을 쓰며 즐거워했고, 더 쓰겠다고 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다음 시간에도 또 쓰면 안 되냐고 물었다. 시키지도 않은 글을 써서 가져오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최근 1,200자 소설 쓰기를 했는데, 에이포 한 장을 훌쩍 넘은 아이들이 꽤 있고, “시간 다 됐다”라는 말에 “안 돼요. 조금만 더요!”라며 ‘글을 더 쓰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니 기분이 묘하다. 그리고 교무실까지 따라와 “선생님, 제 소설 읽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말해 주세요.”라며 아직 읽지도 않은 나를 재촉한다. 나는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 곁에서 그 글을 돕는 사람이다.

문학과 매체, 어떻게 수업하고 평가할까?

수업을 준비하며

소사고등학교 수업이 있던 전날 〈문학과 매체〉 전임 선생님께 “어떻게 수업하셨어요?”라고 물었더니 “편하게 하시면 돼요. 교과서도 따로 없어요.”라고 하셨다. 교과서가 없다? 그래도 대안학교에서 꾸려 왔던 국어와 독서 수업의 경험이 힘이 되었다.

〈문학과 매체〉 과목의 핵심은 ‘문학’과 ‘매체’를 연결하고 ‘문학’ 그 자체를 ‘매체’로 바라본다. 아이들에게 문학과 매체를 통해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글쓰기를 시도한다. 교과서도 형식도 활동도 정해진 틀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더 자유롭다. 다만,

무한히 자유로운 수업을 위해 생각하고 생각해야 한다. ‘자유로운 국어와 문학’. 대안학교 국어 수업에서 늘 고민하던 것이 아닌가. 나는 주제가 서로 통하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 만화 혹은 웹툰을 찾아 문학과 매체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했다. 특히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독특한 즐거움과 감동을 ‘책’과 연계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크리라 생각했다. 영화를 고를 때는 대중적이지만 예술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며 상영 시간이 길지 않아 수업 시간에 활용할 만한 것인가를 고민하며 찾았다. 수행평가는 편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업 사례와 방송, 에스엔에스를 찾아보며 학생들에게 친근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했다.

제재	교육과정 성취기준	수업 내용
단편영화 〈유월〉	[12문매02-03]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의 특성을 탐구하고 예시한다.	영화의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문학적 요소로 연결하여 해석하기
소설 《멋진 신세계》 영화 〈가타카〉	[12현감02-03] 작가 의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감상한다. [12문매02-04] 영화 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설명한다.	소설과 영화를 연계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기
소설 《고발》 영화 〈타인의 삶〉	[12현감02-03] 작가 의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감상한다. [12문매02-04] 영화 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설명한다.	소설과 영화를 연계하여 개인의 삶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대해 질문하기
만화 《까대기》 드라마 〈송곳〉	[12문매03-01] 만화를 이루는 조형 매체의 특성을 탐구하고 예시한다. [12문매02-06]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드라마 스토리를 구상하여 설명한다.	만화와 영화를 연계하여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 찾기
공모전 글쓰기	[12문입01-04]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어떤 갈래와 어울릴지 탐구하고 설명한다. [12문입02-07] 창작 메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갈래의 문학작품을 습작하고 설명한다.	(수능 이후) 다양한 공모전 글쓰기로 자신에게 맞는 글을 쓰며 공식적인 글쓰기에 도전하기

표 1: 〈문학과 매체〉 수업 계획⁴

첫 수업은 단편영화 <유월>⁵로 정했다. 영화 매체 수업은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고, 살아 있는 글쓰기를 끌어내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막상 수업해 보면 영화 수업은 만만치 않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 수업은 영화 속 재미를 넘어 의미를 찾는 질문을 해야 하고, 영화를 통해 나의 존재와 타인, 사회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 영화는 주인공 유월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춤을 통해 문학의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상영 시간이 25분으로 수업 시간 안에 감상할 수 있어 좋았고, ‘학교’라는 공간의 친근감과 ‘춤비’라는 소재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생각했다. 대사보다는 음악과 춤 위주의 영상은 몰입도를 높이고, 인물들의 억압된 욕망이 춤으로 폭발되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질문과 해석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새로움을 들여다보는 영화 수업, <유월>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일까?”

영화를 보기 전에 한마디를 던졌다. 질문을 한 뒤에는 바로 발표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5분 정도 시간을 준다. ‘새로움과 자유로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머리 위로 물음표를 띄우며 끄적인다. 한참을 쓰다가 벽벽 지우기도 한다. 나는 아이들의 생각이 뻘뻘 고개를 내밀 때까지 기다린다. 이윽고 아이들은 “신상 옷을 샀을 때요.”,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요.”, “여행 가서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을 때요.”라며 새로웠던 기억을 나눈다. 20여 명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익숙하고 평범한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을까?”

아이들은 “평범한 게 어떻게 새로워요?”라며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비틀고 뒤집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독일에서 3년을 살았다. 새로운 세계가 두려웠던 나는 다정하게 손 내

미는 독일에 곁을 주지 못했다. 병원비도 약값도 무료라서 아프면 돈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는 나라, 학비가 들지 않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누군가 넘어지면 달려가 그 사람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방인도 같은 인간으로 인간답게 대해 주었던 나라. 낯선 땅을 자세히 보니 자유롭고 따뜻했다. 하루하루 독일과 마주할수록 평범한 일상들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해졌고, 블로그에는 독일 이야기들이 소복이 쌓여 갔다.

곰곰 생각에 빠진 아이들에게 나는 익숙한 새로움을 ‘늘어진 티셔츠에 부스스한 머리를 한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을 때’, ‘서랍 속에서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속에 조그만 내가 있을 때’를 예로 들었다. ‘아!’ 하는 탄식과 함께 아이들의 머리 위로 별들이 튀어 올랐다. ‘새로운 것’은 독특하게 탄생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아니며 일상에 숨 쉬고 있는 우리가 알던 그것이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비트가 강한 타악기와 기계음이 섞인 음악이 흘러 나온다. 엎드렸던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난다. 단편영화 <유월>은 한국에 술종합학교 영화와 2018년 졸업작품으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을 담고 있다. 한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고 춤추는 소년 유월은 어느 날 사립초등학교에 발발한 집단무용증인 댄스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당하며, 질서에 목매는 담임 선생님 헤림과 옆 반 선생들에게 추격당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유월>은 설명 없이 낯선 서사와 빠른 전개로 아이들을 집중시킨다. 영화를 보는 아이들의 미간은 찌푸려지고 입술은 움썽거린다. 달리는 유월의 손끝과 닿고, 어느새 유월을 따라 춤추게 된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학교와 선생님, 아이들이 자유로운 음악과 춤 속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본다. 영화 속 유월은 운동장을 달린다. 유월은 손을 뻗어 초여름 나른한 바깥바람을 느낀다. 연둣빛으로 싱그러운 운동장의 나무들과 숨을 주고받는다. 분명 벌을 받는 중인데 유월은 자유롭다. 유월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나는 유월처럼 아이들에게 공간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었다. 또 그것이 문학과 글쓰기로 가능하다는 새로운 신비를 알았으면 했다. 무엇보다 <문학과 매체>라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이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4 <문학과 매체>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예술계열 전문교과Ⅰ의 과목으로 일반고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술 교과군 또는 국어 교과군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대문학 감상>, <문예창작입문>도 마찬가지로, 본 수업에서는 세 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5 단편영화 <유월>, 2018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와 예술사 졸업작품 워크숍.

도 ‘새로움과 자유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영화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하고, 영화를 감상하게 했다. 그래야 선입견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영화에서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점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영화를 감상하는 편이 몰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감상한 후에는 질문지를 나눠 주고 의미를 생각하여 쓰게 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춤과 음악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바뀌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목의 의미, 규칙의 쌍방성, 유월의 행동, 좀비 춤의 이유와 변화, 진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한 방법’ 등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뻔한 좀비 영화가 아니며, 현재 한국 교육을 춤으로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했다.

1. 우리 사회의 규칙은 무엇이 있으며 꼭 지켜야 하는가?
2.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규칙은 누가 정한 것인가?
3. 이 영화의 제목 ‘유월’의 의미는 무엇일까?
4. 유월은 어떻게 댄스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었나?
5. 영화의 학교에 나오는 ‘운동장’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
6. 영화 속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로운 춤을 출 수 있었나?
7.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표 2: 단편영화 <유월>을 보고, 영화의 의미를 탐구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나누었다. 유월의 반 아이들에게 규칙을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선생님을 보며 우리 사회의 규칙들은 일방적인 규칙일 뿐, ‘서로 간에(쌍방에) 합의하지 않은 규칙이나 법은 무효다’라는 루소의⁶ 말을 인용했다.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그렇네!”라며 격하게 공감한다. 또 뒷자리에서 말을 아끼던 아이들도 슬며시 입을 연다. “학교에서 지키라는 규칙들은 우리 의견이랑 상관없잖아요. 우리에게 묻지 않고 정했잖아요.”

6 장 자크 루소(2013), 《사회계약론》, 문예출판사.

아이들이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해림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뒤, 뒤돌아 교실 문을 때리면서 콧구멍까지 벌렁거리며 하품하는 장면이었는데, 아이들은 코믹한 장면에 웃으면서도 선생님도 ‘하품을 억누르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유월이 운동장을 돌다가 춤 바이러스가 생기는 부분에서 “재는 무슨 벌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신이 났냐?”며 “ 쌤, 우리도 나가면 안 돼요?” 한다. “왜 초반에는 좀비처럼 기괴한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춤다운 춤을 추게 된 걸까?”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뭔가 스트레스 같은 게 해소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람들도 실은 춤을 추고 싶었나 봐요.”라고 영화의 이면을 해석해 냈다.

수업 내내 들었던 생각은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풀어놓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교복 벗고 신나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가고 싶어요”란다. 이제 정말 나가야겠다. 드디어 자유롭고 새로워질 시간.

매체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수행평가,

샤메크 블루위 사진 찍기와 글쓰기

자유로운 문학 속에서 흐트러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하늘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생각이 비워질 때까지 하염없이 걸어야 한다. 단편 영화 <유월>을 보고 한껏 설렌 아이들에게 운동장으로 나가자고 했다. 아이들을 ‘가을로’ 들어가게 하고 싶었다.

영화 <유월>처럼 자연을 만끽하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어울리는 글을 쓰는 수행평가를 운동장에서 진행한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고 소리를 지른다. “ 쌤, 우리 진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대!”라며 곧 스물이 될 아이들은 내 팔을 붙들고 아이처럼 얼굴을 들이민다.

나가기 전에, 사진 찍기 수행평가를 위해 잠깐 디자이너 ‘샤메크 블루위’를 소개했다. 샤메크 블루위는 요르단 암만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이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는 자연이나 도시 풍경을 옷감으로 표현하면서 그림으로만 그려 내던 패션 일러스트의 틀을 깼다. 수행평가에서 이용할 ‘샤메크 블루위 드레스 컷아웃 기법’은 도안 일부를 잘라 내고 자연

을 풍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 기법으로 찍은 여러 의상 사진을 보여 주었더니 자연을 배경으로 한 색감과 빛깔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른다. “진짜 예술이다!” “빨리 나갈래요”라며 시작도 전에 흥분 상태다. 그리고 드레스, 텔레비전, 우산, 나비, 돌고래 같은 도안 여러 개를 아이들에게 나눠 주고 좋아하는 것으로 고른 다음, 안쪽을 가위질하여 잘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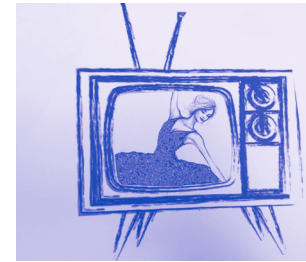
운동장으로 나가 자연을 풍경 삼아 도안을 대고 사진을 찍는다. 사진이라는 매체만으로 아이들은 유월의 춤처럼 자유로워진다. 나는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다시 사진으로 담는다. 아이들은 어느새 가을이 된다. 바람에 날려 도안이 흔들리자 친구들에게 잡아 달라고 하고, 나도 이리저리 불러 다니며 아이들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안을 잡아 주었다. “쌔, 조금만 더 옆으로요. 조금만, 조금만 더요.”라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은 예술의 혼을 쏟는다. 20분 정도 사진을 찍고 남은 시간에는 찍은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 패들렛에 올린 다음, 사진을 찍을 때 들었던 느낌을 시 혹은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나비야 네가 원하는 걸 찾아가거라
잠시 마음 붙일 포근한 사랑을 놓고 갈게
(이다빈, 소사고 3학년)



벚꽃보다도 일찍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목련,
나는 당신에게 봄을 가져다주는 그런 목련 같은
사람이고 싶어라.
(서다솜, 소사고 3학년)



여인은 계속 춤을 춘다. 빙글빙글 빙글 멈추지 않고, 춤을 춘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여인은 웃는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다. 춤을 춰라. 춤을 춰라. 네가 원했던 만큼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최원진, 소사고 3학년)

에스엔에스가 일상인 아이들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다빈이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배경으로, 다솜이는 시든 목련 잎을 배경으로, 원진이는 돌바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익숙한 것들이 이렇게 새로울 수 있구나. 아이들은 한순간에 새로움을 창조해 낸다. 게다가 적당히 달콤하면서 소리 없이 다가와 다정하게 손잡는 글이라니! 좋은 글은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땃글로 옆 친구의 글을 평가해 본다. 서로의 사진을 보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 땃글은 사진과 글이 어울리는지, 글에서 칭찬할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도록 했다. 그런데 수행평가 채점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대부분 아이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고, 대부분 사진과 글은 개성 있고 훌륭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에 따라 세세히 점수를 나누어 매기며 ‘자유로움과 새로움’을 담은 아이들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사진 찍고, 글쓰기	① 매체의 형식적 특징을 잘 살려 자신이 의도한 바를 표현하였는가? (예: 사진의 구도와 느낌 등) ② 매체와 글이 어울리는가? (예: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 보완성 등) ③ 글의 주제가 뚜렷하고,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④ 자신의 개성을 잘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다른 친구의 작품 감상하기 (동료 평가)	① 매체 자료와 글의 어울림을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 ② 감상 소감을 명료하게 작성하였는가? ③ 칭찬할 점을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④ 아쉬운 점을 근거나 대안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표 3: <문학과 매체> 수행평가 계획

수능 이후의 고3 수업, 글쓰기 공모전 도전기

화기애애한 여학생들이 있던 3학년 1반은 다른 반보다 생기가 있었다. 다만, 안경을 쓴 남학생 한 명은 맨 뒤에 멀찍이 앉아 수능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날은 영화를 보려고 잠시 불을 켜는데 문제를 풀던 아이가 일어나 갑자기 성큼성큼 뒤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교실 불을 켜고, 태연한 얼굴로 아이는 다시 문제를 풀었다. 영화를 보려던 아이들은 야유를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능 며칠 전, 아이는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수능 끝나면 수업 들을게요.”라고 말했다. 말없이 나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고,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다. 수업 중에 자거나 장난을 치거나 잠담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교사로서 특별히 저지할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관심 있게 수업 듣는 아이들은 반마다 보통 5명 정도였다. 11월 이후로 고3 수업은 더 어려워졌다. 수능이 끝난 고3 아이들은 거의 학교에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밤을 새우고 와서 아예 자기도 했다. 나는 일부 깨어 있는 아이들에게 ‘돈 버는 글쓰기’를 제안했다. 아이들의 잠담 소리가 푹 끊겼다. 우리는 공모전 사이트에서 적당한 것들을 찾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간단한 ‘슬로건 공모전’부터 쉽게 쓸 수 있는 ‘편지 쓰기 공모전’까지. 특히 편지 쓰기 공모전의 주제는 ‘3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30년 후 나의 자녀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꽤 매력적이었다. 이오덕⁷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 안의 솔직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거짓 없이 쓰면 ‘좋은 글’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기대 반 실망 반 이곳저곳 응모하던 어느 날, 수상자 명단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

제12회 아름다운 편지쓰기 공모전 수상자
송지혜(고2), ‘금상’ 경기도교육감상
이다빈(고3), 한국인성교육협회 이사장상
조수민(고3), 한민족문화교류협의회 회장상

7 이오덕(2017), 《이오덕의 글쓰기》, 양철북.

“이 편지를 읽는 네가 누구든지 사랑할게.”

지혜가 쓴 ‘30년 후 나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나는 읽고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담은 ‘위로’를 담은 ‘진심’은 내게 다가왔다. 상을 받은 다빈이와 수민이는 “진짜 상 탄 거예요?”라며 몇 번을 내게 물었고, 무엇보다 글쓰기로 공식적인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그리고 “ 쌤, 우리 문학동아리 만들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나는 학교에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자유로운 국어 수업은 가능한가?

일반고의 분위기는 대안학교와 확연히 달랐다. 수능과 내신 앞에서 아이들의 관심은 ‘좋은 점수, 좋은 대학’에만 있어 보였다. 내가 바라는 ‘자유로운 문학’은 배부른 소리 같았다. 하지만 재미있고 새로운 수업과 활동이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반응하지 않을까. 설 새 없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섰고, 그것은 감사하게도 통했다. 사진을 보고 상상하여 소설을 써 보거나, 샤메크 블루위 기법으로 운동장에 나가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다.

학기 말이 되어 가고 나는 시험 출제와 평가, 다가오는 세특에 시달린 채 〈현대문학 감상〉 수업에 들어갔다. 그날도 신비는 수업 초반부터 잤다. 깨워도 깨워도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영화 〈자전거 도둑〉을 보고 마지막 장면을 글로 묘사하는 수행평가에서 나는 신비의 글을 읽고 놀라고 말았다. 신비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몰입과 이해가 뛰어났고, 영화 속 장면을 눈에 그리듯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로마 거리 한복판에서 부르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거사를 저질렀다는 망신과 죄책감으로 여러 번 턱 언저리를 매만지는 안토니오의 손에서 부르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얄전히 붙들려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 아버지인 안토니오는 마치 아들에게 고맙다는 그 한소리조차 할 수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은 금방 먹먹하게 젖은 목구멍에 막혀 올라오다 가라앉길 반복했다.

한마디의 말을 꺼내는 것보다 눈앞의 이 아이가 자신처럼 자라지 않길 바라는 수많은 염원을 곱씹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 쉽게 느껴졌다.
(문신비, 소사고 2학년)

신비는 수업 내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신비의 꿈속 세계는 어떤 곳이란 말인가? 나는 그 이후로 신비를 더 자주 깨웠고,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제가 원래 게을러서 그래요”라며 신비는 무심하게 글 하나를, 또 하나를 툭툭 내게 꺼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나는 솔리와 신비, 지은이에게 소설을 써보라고 제안했다. 사진을 상상하며 소설을 써 보는 수행평가에서 부러울 정도로 글을 잘 쓰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오, 재밌을 것 같아요!”라며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후회’를 소재로 현대를 배경으로 에이포 10장 분량의 판타지 단편소설을 써 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마감을 정해 놓고 쓰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 했을 일인데 한 달 동안 우리는 단편소설을 써냈다. 마감 전날 긴장감은 몰려오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하면서 미완성인 듯 완성인 듯한 네 가지 색깔의 작품이 나왔다. 우리는 각자 써 온 소설을 가지고 카페에 앉았다. 서로의 소설을 정성껏 읽고 감상평을 나누었다. 누가 기준을 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소설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보완할 점들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평가했다. 특히 솔리의 소설 <아포칼립스>는 강렬했다. 디스토피아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전하는 희망은 선언했다. 세상의 끝, ‘명멸하는 빛’ 속에서 ‘들이치는 여름’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

“아까 누나 지켜 줘서 고마워.”

몸이 제멋대로 꺾였다. 어느새 떨어진 하민은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났다. 아스팔트 위로 누웠다. 몸이 타들어 가는 듯했다. 뒤통수가 뜨거웠다. 온몸이 태양 아래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가라앉는 망막 위로 작열하는 태양. 꺼질 듯 명멸하는 빛. 아스팔트 위 경련하는 몸. 아득히 죽어 가는. 그럼에도 선언히 타오르는. 새파란 기억의 조각

들. 머리 위로 선히 스쳤다. 점차 호흡이 말라 갔다. 매일 가파른 지옥이었지만. 질긴 숨이 그리도 원망스러웠지만. 삶의 저주 속에서. 멸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살았다고. 죽지 않고 버텼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들이치는 여름은 끝내 뜨겁게 타올랐다. (천솔리, 소사고 3학년)

아이들은 새로운 수업에 움직였다. 자유롭게 즐거운 수업에 눈을 떴다. 듣지 않는 척하면서도 서서히 관심을 가졌다.

흐트러질 때 자유로워지는 문학

<현대문학 감상> 마지막 수업을 하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아이들과 살가운 작별 인사를 할 만큼 친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학생 몇 명이 다가왔다. 그중에는 수업 첫날 내가 깨웠던 그 아이도 함께 있었다. 아이들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더니,

“선생님, 저희 내년엔 선생님 수업 신청했어요.”

“내 수업?”

“<문학과 매체>요.”

“아, 그랬구나.”

계약이 이번 학기까지라서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와는 몇 초간 눈을 마주쳤다. 우리는 말없이 눈인사를 나눴다. 생각했다. 유월의 마지막 대사, “선생님, 뭐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내 수업에서 자유로운 춤을 추었을까? 나도 아이들과 어울려 같이 춤을 추었을까? 내 수업의 한계는 있었다. 모든 아이가 수업에 다 참여하지 못했고, 문학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는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수업은 아이들의 간혀 있던 생각을 새롭게 일깨우고,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 있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다.

월요일 2시, 대안학교 글쓰기 시간. 몽롱한 오후, 나른한 햇살에 즐기고 있는 소명이를 깨운다. 한 문장을 길어 내려고 고민하는 세은이와 다 쓰

지도 않고 발표부터 하겠다는 성재를 본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쓸까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새처럼 우리의 얽매인 세계를 툭툭툭 두드린다. 뭐라도 써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 흐트러진 세계로 들어가고, 솟아오르는 이야기들을 꺼내 마주한다.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새로운 국어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춤을 춘다.



• 정아연
필자

• 글쓴이 소개 •

정아연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이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독일 바이마르에 살며 글을 썼습니다. 창작극 〈달려라 지브라〉, 〈사랑이라는 기억의 조각〉 등의 대본을 썼고, 《시험 없는 진짜 국어 수업은 언제?》를 출간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상상이 되는 이상한 취미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씁니다.

<https://blog.naver.com/jungar1215>